

CJ, 2004년 영업이익 19% 감소

매출액 2조5434억원에 영업이익 1521억원 ... 생활용품 사업 부진

CJ는 2004년 매출액 2조5434억원, 영업이익 1521억원, 경상이익 2149억원, 당기순이익 1582억원의 경영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매출과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5.7%, 0.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8.0%, 6.1% 감소했다.

매출은 식품, 생명공학, 사료 등 대부분의 사업부문에서 증가했으나 일본 Lion으로 매각된 생활용품 부문에서 비교적 큰 8.2% 줄어 전체 매출 증가폭이 줄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경기불황으로 고수익 사업이 부진했고 생활용품 부문 매각에 따른 이익률 저하 등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2003년 82%에서 2004년 66% 수준으로 떨어졌다.

CJ는 2004년 극심한 불황으로 인한 내수경기 실종과 사업부문 매각 결정에 따른 이익률 저하 등으로 경영실적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식품, 사료, 베이커리 등에서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하락, 안정적인 판매관리비 관리, 계열사 경영 호조로 인한 지분법 평가이익 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1/18>